

권세는 절망을 지나서 온다

| 김흥호 |

'절대' 앞에서 절망해 본 자만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편집자 주).



로마서 13:1~7

누구나 자기를 지배하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거스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권세’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권세라는 문제를 따질 때에는 언제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간단해요. ‘모든 권세는 일체가 하나님께 있다.’ 그것 한마디예요. ‘비록 권세를 빌려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착하게 그 권세를 써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권세뿐만 아니고 ‘나라도 영광도 일체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대개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도장까지 찍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이지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또 이 우주도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일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제일 강한 분이 하나님이다. 제일 밝은 분이 하나님이다. 제일 큰 분이 하나님이다. 마치 하늘에 태양이 제일 밝고, 제일 힘 있고, 제일 크듯이 하나님께서 제일 강하고, 제일 밝고, 제일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족다. 이거지요. 하나님께 족다. 하나님께 대해서 ‘족다’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자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족다 이거지요. 족으니까 십자가를 또 지는 거죠. 십자가를 족다는 거나, 하나님께 족다는 거나 같은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처럼 족다고 하기는 싫거든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좀처럼 ‘족다’ 그러기가 쉬워요? ‘족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에 도달해서야, 죽게 되어서야 ‘지금 내가 벌었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지식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영예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죽는 순간에 가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 졌다고 안 할 사람은 없겠지요.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죽을 때 가서 '졌다' 그러지 말고, 미리 졌다고 그러자는 말이지요. 이것을 죽음의 선취란 말로 쓸 수 있겠지요. 죽음을 앞당겨 가진다 이거지요. 미리 죽어두자 이거지요. 내가 한번 지어 본 글인데,

깬다, 깨진다는 다 같은 말인 것을
깨짐을 설워하여 깨닫지도 못하리니
입이 일 깨치기 전에 깨어봄이 어찌리.

난 깨진 후에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깨지기 전에 미리 깨져 봤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선취라는 것이 좀처럼 되지 않아요. 사람이라 하면 '나'라는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내 뜻이라는 게 자꾸 나오기 때문에 좀처럼 졌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래도록 고민을 하는 거지요.

이 졌다는 말을 하기 전에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 선생이 밤낮 한 얘기에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졌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악마에 대해서 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에는 악마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당은 “악마에게 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는 “오호라! 나는 괴로



운 사람이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 세상을 이기고 악마를 이기려면 “하나님께 졌다”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을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졌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아침에 졌다 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졌다 그래야 사람이지, 더 쉽게 말하면, 죽어서 사는 게 사람이지 살아서 사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서 사는 건 생존이지 생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짐승처럼 사는 것이에요. 요새 신문에 보면, 사람을 죽였다느니, 어선을 잡아 갔다느니, 사람을 뺏다느니, 저마다 제 뜻대로 하려니 끝이 없죠. 밤낮 죽이고 싸우고 그래야죠. 우리가 죽이고 싸우는 동안은 그저 짐승이지, 원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평화가 없이는 사랑이 없죠.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싸우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졌다고 하는 무엇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있느냐?

오늘 세례를 받으려는 분들은 어제 만나서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의 얘기를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진 것 같다. 이거예요. 완전히 졌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진 것 같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세례를 받아야겠다. 대개 그런 생각이예요. 난 이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졌다, 라는 건 참 어렵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원효 같은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지요. 똑똑한 사람이 ‘ 졌다 ’ 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래서 그는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다가 요동 어딘가에서 하룻밤 자고는 이제 중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하고는 돌아왔다지 않아요. 이것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돌아와서도 왕이 모든 승려를 다 불러서 큰일을 의논할 때, 원효는 불러도 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왜 안 왔느냐 하면 “서까래들이 모이는데 대들보가 어떻게 오겠느냐”고 교만하게 말했대요. 공부 안 하겠다고 돌아오는 것만 해도 교만한데, 서까래 모이는 데는 가지도 않겠다는 걸 보면 상당히 교만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요석공주한테 녹아나고 마는 거죠. 교만하면 어찌겠어요.

그래서 다시 사람이 되어 보려고 강원도 쪽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떤 절에 들어가서 머슴으로 사는 거죠. 머슴으로 살다보니까 거기 있는 중들이 전부 자기가 쓴 교과서를 갖고서 배우고 있거든요. 거기서 또 교만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것들이 뭘이냐, 자기가 쓴 것을 알지도 못해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 또 안 뻘어요.

그런데 그곳 주지란 녀석이, 가끔 부엌에 나와서 누룽지를 좀 달라고 해요. 그래 기껏 공부해서 주지씨이나 돼 가지고 부엌에 와서 누룽지를 달라고 하나. 그래서 원효는 그를 ‘누룽지 스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이제 그리고는 수도를 해보려고 하다가 모두 다 시원치가 않아서 가는 거죠. 갈 때에 그곳 사람들은 참 좋은 식모가 간다고 섭섭하다고 나와서 야단들이예요. 어서들 잘 있으라 하고 자기는 떠나서 오는데 누룽지 스님만은 섭섭하다고 자꾸 쫓아와요. 물론 원효라는 건 전부 감추고 3년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덕 꼭대기에 올라서자 이제 들어가시라고 하고는 좀 쉬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던 절간을 바라봤어요. 감개무량하죠.

그때 청천벽력이 떨어져요. “원효!”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누룽지 스님이에요. 거기에 그만 원효의 모가지가 떨어지고 마는 거지요. “스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귀신도 모르게 숨어야지.” 이 한마디를 남

세레란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 없이는 일생에 더러운 사람 밖에 되지 못해요.

겨 주고 가버렸어요. 원효가 아무리 숨으려고 했건만 누룽지한테는 들켰다 이거지요. 벌써 적에게 들켰으면 모가지는 달아난 거지요. 거기서 원효가 다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야, 이거 세상이 이렇구나.

그 다음은 다시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 하고는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사는 거지요. 산다고 하는 것, 싸운다고 하는 것, 생존경쟁이죠. 사람이 한번 죽어야 생존경쟁을 벗어나는 거죠. 죽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란 사람, 어찌나 지독한지 하여간 뱃속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형인 에서하고 싸웠어요. 세상에 나와서도 형의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뺏고, 장인의 집에 가서는 딸 둘과 재산을 몽땅 뺏아 가지고 오죠. 『베니스의 상인』 중에 샤일록이라고 나오지만 전통적인 샤일록이지요.

그러던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압복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 압복강을 건너는데 천사와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천사에게 허리를 얻어맞아 허리가 부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천사가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란, ‘이스라’는 절대복종, ‘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의 엘리, 하나님께 절대복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복종하는 ‘이스라엘’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 형하고 화해를 하고 역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이렇게 탁, 얻어맞는 순간이 일생에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

가 회개하는 날 체험하는 거지요.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되 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발로 한번 찬다 이거지요. 사자는 새끼를 발로 막 차버려요. 그래서 밑에 떨어져 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며 올라와야 사자 새끼가 되는 거지요. 그냥 거기서 짹 하면 그만이지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건 사자 새끼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건 보통 힘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예요. 발로 차든지,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으로 박든지, 수없이 수난을 겪게 하든지, 맹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수없는 고난을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문명국가라 하는 나라들을 보면 오래 고생한, 추운 나라들이죠. 더운 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야만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속담에도 있잖아요. 아들이 귀하면 여행을 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어루만져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야 천 배도 되고 만 배도 되는 거지, 이것 없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야스퍼스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은 자유의 길이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례란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거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것 없이는 일생에 더러운 사람 밖에 되지 못해요. (끝) 

- 이 글은 『김홍호 사상 전집 -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현재 **김홍호** | 다석 유명오 선생께서 내리신 호는 현재. 1919년 2월 26일 평양에서 부친 김성항과 모친 황성룡 사이의 여섯 형제 중 다섯째로 출생. 1944년 일본 와세다대 법학부 졸업. 1956~1984년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및 교목실장. 미국 버틀러대 대학원 종교사학 석사. 1986년 감리교신학대 종교철학과 교수. 1996년 이화여대 명예 철학박사.

◀▶ 김홍호 선생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기독교와 유교, 불교, 도교를 아우르는 대표적 영성가이자 구도자였던 김홍호 선생께서 지난 12월 5일 오전 7시 28분 향년 93세를 일기로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 하셨습니다.

김홍호 선생은 동양의 전통 종교를 섭렵한 개신교의 대사상이자 다석(多夕) 유명오 선생의 제자로서 그의 영향을 깊게 받아 기독교적 입장에서 타 종교를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1965년 이화여대 대학교회에서 일요 강연을 시작하였고, 이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유교, 서양철학까지 다양한 경전과 고전을 넘나드는 '연경반(研經班)'이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연경반 강연은 2009년 12월 '마지막 수업'까지 무려 45년간 이어졌습니다.

35세에는 '시간제단(時間變斷) 체험, 즉 시간이 끊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기독교든 불교든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활활 타는 스타일은 기독교로, 맑고 청정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교로 가라"고 설파하였는데, 모든 종교적 체험은 깊게 들어가면 결국 하나로 통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을 강의하는 이유에 대해 "기독교보다 불교가 이론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사람은 누구나 사명을 갖고 태어나는데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가르치는 일이라는 자각에 따라 강연을 하고 책을 썼고, 특히 55년간 일일일식(一日一食),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며 강연에 매달린 이력은 유명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빛 힘 숨(자가 부활 승천)

요한복음 강해 (전5권) 세트

김홍호 저 | 사색 판 | 56,000원

『김홍호 사상 전집』 제8권~12권이 출간되었다. 이번 책은 『빛 힘 숨: 십자가 부활 승천』의 제목을 가진 요한복음 강해 다섯 권이다. 이 책은 일러두기에 소개된 것처럼 21장 81절로 구성되어 있다. 21장은 요한복음의 21장이며 81절은 81회의 강의를 말한다. 이 책은 저자 김홍호 선생이 1993년 3월 7일부터 1995년 6월 25일까지 이화여대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강의했던 것으로 총 2년 반, 다섯 학기 동안 해온 81회의 강의들이다. 이 강의들을 학기 별로 나누어 전5권으로 출간하였다.



김홍호 사상 전집

기독교 설교집 세트(전6권) (CD 1장 포함)

김홍호 저 | 사색 판 | 40,000원

저자의 강의와 설교 등을 모아 총6권으로 엮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다가 풍부한 비유를 곁들여, 자신이 얻어낸 실천과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절묘하게 전달해온 저자가 펼쳐온 삶의 철학을 이어나간다.

(구성) 제1권 『사람 삶 사랑』, 제2권 『진리로 자유롭게 하리니』, 제3권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제4권 『믿음의 힘』, 제5권 『하루를 사는 사람』, 제6권 『영원을 사는 사람』

김홍호 선생의

마음을 밝히는 책들



주역강해 1, 2, 3

도서출판 사색 권 / 각 권 15,000원

역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이 책은 김홍호 선생이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강의교재는 원본집주 주역(명문당)을 사용했다.

서양철학 우리 심성으로 읽기

1. 철인들의 사상 / 2. 실존들의 모습 / 3. 문학속의 철학

도서출판 사색 권 / 각 권 12,000원

이 책은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플라톤, '에티카'의 스피노자, '순수이성비판'의 칸트,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니체, '존재와 시간'의 하이데거 등 서양철학의 철인들과 그 사상에 관한 신화학 김홍호 선생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서양철학을 우리의 심성으로 이해하고 읽어간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원각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권 / 12,000원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불경으로 알려진 원각경에 대해 김홍호 박사가 1999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학기 동안 이화여대에서 강의한 내용을 녹취하여 편집했다. 원각경 원문을 손수 발췌 요약하여 보충설명을 하고 다른 불경 가운데서 인용한 것을 첨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부록으로 고린도서 주해가 실려 있다.



법화경강해

도서출판 사색 권 / 15,000원

저자가 2000년 3월 부터 2000년 11월까지 매주 일요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연경반에서 한 시간씩 법화경을 강의한 내용을 녹음하여 글로 옮겨 정리한 것.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